

民歎歌



[해제]

가로 12cm, 세로 16cm 크기의 소책 장정 필사본에 수록된 작품이다. 필사본의 분량은 앞뒤 표지 포함 모두 18장인데, 제10장에서 제16장 사이에 귀글체로 필사되어 있다. 앞표지에는 <민탄가(民歎歌)>라는 작품명 외에도 다른 글자들이 적혀 있으나, 마모가 심해 무슨 글자인지 알아볼 수 없다. 이 <민탄가> 외에도 <작소법(鵲巢法)>, <부귀법(富貴法)>, <척사법(擲柶法)>, <동토경이라>, <축사진언(逐邪嘖言)>, <간귀축귀경(干鬼逐鬼經)>, <간귀경축사진언(干鬼經逐邪嘖言)>, <주자작명법(朱子作名法)>, <한무제어신문답서(漢武帝與神問答書)>, <불설명당경(佛說明堂經)>, <출독진언(出毒嘖言)>, <국명열록(國名列錄)>, <고간지(古干支)>, <어부사(漁父辭)>, <제갈량비결(諸葛亮秘訣)>이라 이름한 글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필사본의 필사자와 필사 시기는 알 수 없다. <민탄가> 역시 작자와 제작 시기를 알 수 없는 작품이다. 내용은 당시의 삼정(三政) 즉 전세·군정·환곡 제도의 문란 및 부패한 관리와 아전들의 횡포를 신랄히 비판하였다. 작품의 배경 지역은 영남의 진주로, 제목 밑에 ‘진주(晋州)’라는 지명이 표기되어 있고, 내용에도 몇 차례 같은 지명이 언급되어 있다. 또 ‘이진풍(李晋豊)’이라는 고을 수령의 이름이 보이는데, 그가 어떤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배경 시기는 조선시대 말로, 당시 세도를 부리던 장동김씨에 대한 비난 및 순종대왕(純宗大王)에 대한 언급이 있다. 하지만 작품에 사용된 일부 어사로 미루어 필사 시기는 이보다 상당히 늦은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 길이는 4음보 1행 기준 134행인데, 중간에 더러 2음보 1행구가 섞여 있다. 필사된 내용 중에 부정확한 표기 및 뜻을 짐작하기 어려운 말들이 간혹 보여 현대어로 옮기는 데 어려움이 있다.

[원문]

이미지

民歎歌

世上 萬民덜아 불상한게 百姓일다
 國家根本 百姓이니 以民爲天 그아닌가
 聖神文武 우리임금 民之疾苦 근심하사
 種種나린 綸音사연 마디마디 간촉하사
 還穀蕩滅 ㅎ옵시고 上納精奉 ㅎ옵시니
 扶杖往聽 父老덜은 득지마자 원이로다
 守令方伯 님시기난 治民하기 위홍이라
 謝恩肅拜 하직혈제 七事講을 바드시니
 守令方伯 하난사롬 奉命之臣 안일년가
 排朔秋奉 官頃所出 尸位素餐 못하리라
 害民之心 업건마는 奸吏의게 너무속네
 이런말을 드러보면 百姓苦楚 알거시오
 治民之道 유억하면 善政碑가 안이설가
 慢慢한게 百姓일다 極惡하다 奸吏덜아
 蒙頃니며 未蒙頃을 疋정마감 표지로다
 戶曹災滅 몇萬結의 한무시나 百姓쥬나
 本無陳處 查起條는 百姓의게 疊徵일세

查陳하라 廟堂公事 年復年來 蒙頃條라
 每年作夫 結價닐제 年事豊凶 보건만난
 田稅太同 餘事되고 人情雜費 첫저삼어
 上京色吏 路資싸지 넉넉한게 마련하여
 時價보단 五六兩을 每結의서 더증하여
 十一條 초지채 每名下의 입니條난
 元結의서 加結이고 各面書員 兒錄이라
 木花動鈴 南草善物 年分聚斂 뉘안물고
 이거저거 분수하면 구실한먹 정한금에
 十四兩式 더무너니 그도그러 하거니와
 虛名虛卜 出秩하야 當年치로 돈을밧고
 酒餐床의 頃을치너 後年書員 쏘나오면
 案表보고 卽頃하네 官家呈訴 하라하고
 外村百姓 邑內오면
 食債酒債 白紙쌈이 구실멋짐 虛費하네
 千辛萬苦 呈訴니니 官家題辭 明案하다
 查案移定 書員맏게 물에불탄 公事로다
 軍丁으로 일너서난 隨闕充隊 國典이라
 동년마다 白骨徵布 各邑마다 邑保도계
 爲國乎아 爲民호아 法外事를 어이하리
 還穀마련 본번의난 深謀遠慮 거로하다
 紙上窓文 寒心호오 百姓덜만 쥬계니네
 精棠穀을 감색하야 휘더러서 바든환자
 分紛時의 每石粟이 베雜色이 三四斗라
 倉卒놈 의히키와 庫案의 分石秋라
 發환하고 還入庫면 돈뵈고 移作錢을
 倉色놈의 장사질을 어니官家 살필소야
 이름조흔 莫重國穀 衙前놈들 취利條라
 千石逋을 지거더면 國法의난 주기난니
 衙前놈들 妙計보소 勢道宅의 請囑하고
 朱蕭스데 變通나네
 부자형제 각명하의 만은포음 나나미고
 죽은사름 이름네러 鬼錄條라 文書숨어
 저진포음 죽거이와 업든미한 쏘을이너
 半祖半米 六斗米로 粗還한섬 불충한다
 일곱돈의 還子한섬 臥還條로 出秧한다
 京使作錢 營作錢 還穀充數 磨鍊하여
 每石의서 一二斗식 都습미여 몇百石을

巡營甘結 나러온들 百姓이야 듯나보나
 逋吏의게 물리기는 每石닷돈 常定이오
 百姓들은 한성의서 五六斗식 分排하여
 作錢傳傳令 돌린後에 刑吏將校 열이엿다
 팔잘나서 치나노코 面主人놈 주란도다
 杖之囚之 星火가치 不留時刻 卽納한네
 그도그러 흥거이와
 民斂할일 이사오면 아전놈들 橫財로다
 新旧쇄마 도계錢과 宰相家宅 葬事時에
 二三百金 드는일을 三四千金 늘어노코
 불상하다 百姓덜이 손톱발톱 자처지게
 汗滴田土 익을석여 一年農事 지어느니
 官納하고 남지안네 父母兄弟 妻子식이
 머슬먹고 살잔말고 目不識丁 愚氓들은
 文書씩을 모르나니 有識하온 守令들이
 하난일이 무어시오 글러요티 살피시오
 牌子傳令 세올어면 보도안코 수결두네
 마르시오 마르시오 그러하고 百姓살가
 驛南古道 晉州골은 七十一面 大邑이라
 양수양불 官房重地 사직지공 두참이라
 四十年前 己卯年의 保國爲民 徐政^α이
 교폐지방 석여닉여 邑保도계 연풍하니
 純宗大王 判下公事 흥놀가튼 聖恩이라
 九兩五錢 結이요 二兩五錢 軍錢이라
 인정雜費 一併하야 約戈으로 上納하니
 堯舜禹湯 世上인가 살거고나 살거고나
 百姓니 살거고나
 거룩하다 朝鮮天地 이런聖德 쏘인난가
 亂臣賊子 만타한들 判下公事 고칠소냐
 不幸하다 不幸하다 이近年을 當하여서
 害民之賊 그뉘런고 세도之伯 守令奸吏로다
 聖朝判下 忌揮업서 加結하여 결포하네
 軍錢 千兩의서 移錢十兩 쏘어더서
 用之無處 쇼을하니 結弊生弊 그아닌가
 구실금을 더부드며 大同무면 어닌일고
 漢陽城中 기리게신 聖君니나 고지듯제
 至愚且愚 百姓들은 거뉘라서 소계블가
 皮裡春秋 다잇나니 公論이야 업슬소야

義氣있다 李晋豊이 一邑事을 擔當하여
 結布名色 세이라고 芻邑芻莞 此局가지
 床郷으로 단이면서 費盡心力 四年만의
 結布色名 세여시나 우리聖君 判下되로
 못될썸 안이오라 軍錢千兩 도로무니
 소강의잠 자나마나 朝三暮四 公事로다
 이리하나 저리하나 만만한게 百姓일다
 百姓인들 몰을소야 ㅎ느님아 ㅎ느님아
 죽을일이 쏘싱기에 裨將廳과 掾吏廳의
 돈을들여 請囑하고 살롬사서 議승하여
 大小民人 所願이라하니 可笑롭다 사롬덜아
 이런말을 드러보소 兩班名色 하느이가
 軍布을기 芻와하며 九兩五錢 어렵거든
 加結하여 三十兩 어늬百姓 芻타하여
 自願하고 닢달틀가 三十兩 적다하여
 三十五兩 도두라네 어이하어 도두논고
 結弊生弊 한다하여 무슨結弊 한다던고
 三十餘件 이리하데 一邑百姓 다주거도
 吏奴逋나 벗겨주소 아전吏老 경가우리
 頽落한안 郷校條理 百姓가들 옥고치지
 허다事業 한다하데 奸吏놈들 浮動하고
 일하기는 芻커이와 주거가는 百姓이야
 아조죽지 불상하다 고쳐주소 고쳐주소
 晋州客舍 고쳐주소 天上의난 細雨와도
 殿牌前의 大水지니 虛事로다 虛事로다
 殿牌집도 虛事로다
 壯洞金氏 書院이면 時刻인들 머물소야
 儒會한단 말은도타 晋州一邑 郷願인가
 各下人의 수교로다 大小民人 머릿고나
 다른선비 쓸디업서 別經綸 솜여니니
 方何諱도 別有司라 掌議色掌 입명으로
 議訟참에 안이갈가 등장가식 등장가식
 儒會所의 등장가식 儒會所의 안이되니
 營門으로 議訟가식 近來營門 쓸디업다
 議訟가기 무엇할고 裨將먹일 돈이업다
 此局인들 못할손가 此局의도 안이되면
 上言이나 하여보식 그도저도 안이되면
 죽을박가 할일업네 죽을터니 되거더면

아물하면 오직하가 이런일을 흥논놀들
우리몬 저거보식
이노리를 돌려듯고 可否間의 말들하소

漁父辭

天生我才 쓸디업서 世上名利 하직흥고
商山風景 보리보고 四皓遺迹 닷토이라
人間富貴 절노두고 物外烟霞 興을제위
靑蘿烟月 디사립을 白雲深處 다더두고
寂寂松林 기증난다 廖廖雲壑 제뉴오라
烟深澗北 市朝멀고 桂花山南 多事적다
扣枻乘流 내려가니 白蘋紅蓼 경조티고
長長釣絲 한낙다를 落照江天 비겨시니
九陌風塵 미친그별 一竿漁翁 닌몰뉴아
泛泛蒼波 니니흥을 碌碌世人 알이업다
銀鱗玉尺 쉼난고디 野樹江天 흥비시다
巨口細鱗 낙거닉니 松江鱸魚 흥비손야
蘆花霜葉 낙디거더 暮江煙霞 빅을믹고
十里波岸 니러가니 白鷗飛去 쏜이로다
芒鞋閒步 夕陽길에 三節竹枝 손닉쥐고
洞壑松聲 구름속에 草堂柴扉 드러가니
琴書消日 흥던고디 有酒盃樽 흥엇던고
登高舒嘯 오날하고 臨流賦詩 닌일하자
樵然玉山 취흥후에 石頭閑眠 잠을드러
鶴唳一聲 제돌은니 桂月三更 불가엇다
唐虞天地 이안인가 葛天民氓 나쑤이다
長歌短歌 두어곡에 一盃一盃 다시먹고
信步花鳴 석씩하고 閑眠苔磯 날날하니
江湖雲林 니니흥을 鷗鷺猿鶴 쏜이안다
靜裡風月 닌을커은 魚舟生涯 뉴가알니
蘭生幽谷 物理업고 雲在高山 집이업다
∞ ∞ 山中 흥가흥디 朝採紫芝 아적먹고
塞培溪上 景物조흥디 夕釣江魚 전역먹고
世上名利 다벌이고 物外江山 외머기며
千載萬載 千萬載 如此如此 늘글이라

[현대역]

이미지

民歎歌

세상 만민들아! 불쌍한 게 백성이다.
 국가 근본 백성이니 이민위천(以民爲天)1 그 아닌가?
 성신문무(聖神文武) 우리 임금 민지질고(民之疾苦)2 근심하사
 종종 내린 윤음(綸音)3 사연 마디마디 간측하사4
 환곡(還穀)5 탕감 하옵시고 상납 정봉(精捧)6 하옵시니
 부장왕청(扶杖往聽) 부로(父老)들은 죽지 말자 원이로다.
 수령(守令) 방백(方伯) 내시기는 치민(治民)하기 위함이라.
 사은숙배(謝恩肅拜) 하직할 제 칠사강(七事講)7을 받드시니,
 수령 방백 하는 사람 봉명지신(奉命之臣) 아닐런가?
 배삭추봉(排朔秋捧)8 관경소출(官頃所出) 시위소찬(尸位素餐)9 못하리라.
 해민지심(害民之心) 없건마는 간리(奸吏)10에게 너무 속네.
 이런 말을 들어보면 백성 고초 알 것ियो,
 치민지도(治民之道) 유역하면 선정비(善政碑)가 아니 설까?
 만만한 게 백성이다. 극악하다 간리들아!
 몽경(蒙頃)11이며 미몽경(未蒙頃)을 대정 마감 표제로다.
 호조재감(戶曹災減)12 몇 만 결(結)의 한 뭇이나 백성 주나?
 본무진처(本無陳處) 사기조(查起條)는 백성에게 첩징(疊徵)13일세.
 사진(查陳)하라 묘당공사(廟堂公事)14. 연부연래(年復年來) 몽경조(蒙頃條)라.
 매년 작부(作夫)15 결가(結價)16 낼 제 연사풍흉(年事豐凶) 보건마는,
 전세(田稅) 대동(大同)17 여사(餘事)되고 인정(人情)18 잡비(雜費) 첫째 삼아,
 상경색리(上京色吏) 노자까지 넉넉하게 마련하여,
 시가보다 오륙 냥(兩)을 매결(每結)에서 더 증하여,
 십일조(十一條) 초지최(草池最)19 매명하(每名下)의 입내조(條)20는
 원결(元結)에서 가결(加結)21이고 각면서원(各面書員)22 아록(兒錄)이라.
 목화동령(木花動鈴) 남초선물(南草膳物) 연분취렴(年分聚斂) 뉘 안물까?
 이것저것 분수하면 구실한 뭇 정한 금에
 십사 냥씩 더 무느니, 그도 그러하거니와
 허명허복(虛名虛卜) 출질(出秩)하여 당년(當年)치로 돈을 받고,
 주찬상(酒餐床)에 경(頃)을 치고 후년서원(後年書員) 또 나오면
 안표(案表) 보고 즉경(卽頃)하네. 관가정소(官家呈訴) 하랴 하고
 외촌(外村) 백성 읍내 오면,
 식채주채(食債酒債)23 백지(白紙) 값이 구실24 몇 짐 허비하네.
 천신만고 정소(呈訴) 내니 관가제사(官家題辭)25 명안(明案)하다.
 사안이정(查案移定) 서원(書員) 맡겨 물에 불 탄 공사(公事)로다.

군정(軍丁)으로 일러서는 수궐충대(隨關充隊) 국전(國典)이라.
 동네마다 백골징포(白骨徵布) 각읍마다 읍보(邑保)26 도계(到界)27.
 위국호(爲國乎)아! 위민호(爲民乎)아!28 법외사(法外事)를 어이 하리!
 환곡(還穀) 마련 본번에는 심모원려(深謀遠慮) 거룩하다.
 지상창문(紙上窓文) 한심(寒心)하오 백성들만 죽여 내네.
 정당곡(精棠穀)을 감색하여 휘둘러서 받은 환자(還子)29,
 분분시(分紛時)의 매석속(每石粟)이 버 잡색이 삼사 두(斗)라.
 창졸(倉卒) 농 의회(疑懷)키와 고안(庫案)의 분석추(分石秋)30라.
 반환하고 환입고(還入庫) 하면 돈 받고 이작전(移作錢)을
 창색(倉色) 농의 장사질을 어느 관가(官家) 살필쏘냐.
 이름 좋은 막중 국곡(國穀) 아전 농들 취리조(取利條)라.
 천석포(千石浦)31를 지게 되면 국법(國法)에는 죽이는데,
 아전 농들 묘계(妙計) 보소. 세도 덕에 청촉(請囑)하고
 주서(朱書) 끝에 변통(變通) 나네.
 부자 형제 각명하(各名下)에 많은 포흠(逋欠)32 나눠 매고
 죽은 사람 이름 열어 귀록조(鬼錄條)라 문서 꾸며
 지진 포흠 죽거니와 없던 미환(米還) 또 물리네.
 반조반미(半조33半米) 육두미(六斗米)로 조환(조還) 한 섬 불충한다.
 일곱 돈에 환자(還子) 한 섬, 와환조(臥還條)34로 출양(出秧)한다.
 경사작전(京使作錢)35 영작전(營作錢) 환곡충수(還穀充數) 마련하여
 매석(每石)에서 일이 두씩 도합(都合) 매여 몇 백 석을,
 순영감결(巡營甘結) 내려온들 백성이야 듣나 보나?
 포리(逋吏)36에게 물리기는 매석(每石) 닷 돈 상정(常定)이오,
 백성들은 한 섬에서 오륙 두씩 분배(分排)하여
 작전전령(作錢傳令) 돌린 후에 형리(刑吏) 장교(將校) 열 지었다.
 팔 잘라서 채워 놓고 면주인(面主人) 농 주란 좋다.
 장지수지(杖之囚之) 성화(星火)같이 불류시각(不留時刻)37 즉납(卽納)하네.
 그도 그러하거니와
 민렴(民斂)38할 일 있다 하면 아전 농들 횡재(橫財)로다.
 신구쇄마(新舊刷馬)39 도계전(到界錢)과 재상가덕 장사시(葬事時)에
 이상 백 금 드는 일을 삼사 천 금 늘려 놓고,
 불쌍하다 백성들이 손톱발톱 갖혀지게
 한적전토(汗滴田土) 애를 써서 일 년 농사 지어내니,
 관납(官納)하고 남지 않네. 부모 형제 처자식이
 뭇을 먹고 살잔 말고? 목불식정(目不識丁)40 우맹(愚氓)들은
 문서 속을 모르나니, 유식하온 수령들아
 하는 일이 무엇이오? 그런 요처 살피시오.
 패자(牌子)41 전령 세우면은 보도 않고 수결(手決) 두네.

마르시오. 마르시오. 그러하고 백성 살까?
 영남 고도 진주(晋州) 골은 칠십일면(七十一面)42 대응이라.
 양수양밭 관방중지(官房重地) ∞ 직지공 두참이라.
 사십 년 전 기묘년43에 보국위민(保國爲民) 徐政 ∞ 이
 교폐지방(矯弊之榜) 떼어내어 음보 도계 연풍하니,
 순종대왕(純宗大王) 판하공사(判下公事)44 하늘 같은 성은이라.
 구 냥 오 전 결(結)이요, 이 냥 오 전 군전(軍錢)이라.
 인정 잡비 일병(一併)하여 약과(約戈)로 상납하니,
 요순우탕(堯舜禹湯) 세상인가? 살겠구나. 살겠구나.
 백성이 살겠구나.
 거룩하다 조선 천지, 이런 성덕 또 있는가?
 난신적자(亂臣賊子) 많다한들 판하공사(判下公事) 고칠쏘냐.
 불행하다. 불행하다. 이 근년을 당하여서
 해민지적(害民之賊) 그 뉘런가? 세도지백(勢道之伯) 수령 간리로다.
 성조판하(聖朝判下) 기휘(忌諱) 없이 가결(加結)하여 결포(結布)45하네.
 군전(軍錢) 천 냥에서 이전(移錢) 십 냥 또 얻어서
 용지무처(用之無處) 쇼46를 하니 결폐생폐(結弊生弊) 그 아닌가?
 구실금을 더 받으며 대동무면(大同無免) 어인 일고?
 한양성중(漢陽城中) 길이 계신 성군(聖君)이나 곧이듣지
 지우차우(至愚且愚)47 백성들은 그 뉘라서 속여 볼까?
 피리춘추(皮裡春秋)48 다 있나니 공론(公論)이야 없을쏘냐.
 의기 있다, 이진풍(李晋豊)49이. 일읍사(一邑事)를 담당하여
 결포(結布) 명색 세우려고, 정읍정완(淸邑淸莞) 차국(此局)까지
 상향(床鄉)으로 다니면서, 비진심력(費盡心力) 사 년 만에
 결포(結布) 명색 세웠으나, 우리 성군(聖君) 판하(判下)대로
 못될 뿐 아니오라, 군전(軍錢) 천 냥 도로 무니
 소경이 잠 자나 마나, 조삼모사(朝三暮四) 공사(公事)로다.
 이리하나 저리하나 만만한 게 백성이다.
 백성인들 모를쏘냐. 하느님아. 하느님아.
 죽을 일이 또 생기어, 비장청(裨將廳)과 연리청(掾吏廳)50에
 돈을 들여 청촉(請囑)하고, 사람 사서 의송(議送)51하여
 대소민인(大小民人) 소원이라 하니, 가소롭다 사람들아.
 이런 말을 들어 보소. 양반 명색 하는 이가
 군포(軍布) 물기 좋아하며, 구 냥 오 전 어렵거든
 가결(加結)하여 삼십 냥, 어느 백성 좋다 하여
 자원하고 내달을까? 삼십 냥 적다 하여
 삼십오 냥 돌우라네. 어이하어 돌우는고?
 결폐생폐(結弊生弊) 한다 하여 무슨 결폐 한다던가?

삼십여 건(件) 이리하되 일읍 백성 다 죽어도
 이노포(吏奴逋)52나 벗겨 주소. 아전 이노 경가우리53.
 퇴락하는 향교조리(鄉校條理), 백성 가들 옥 고치기.
 허다 사업 많다 하되 간리 놈들 부동(浮動)하고,
 일하기는 즐거니와 죽어가는 백성이야,
 아주 죽지 불쌍하다. 고쳐 주소. 고쳐 주소.
 진주객사(晉州客廬) 고쳐 주소. 천상(天上)에는 세우(細雨)와도
 전패전(殿牌前)에54 대수(大水) 지니, 허사로다. 허사로다.
 전패집도 허사로다.
 장동김씨(壯洞金氏) 서원(書院)이면 시각인들 머물소냐.
 유회(儒會)55한단 말은 좋다. 진주 일읍 향원(鄉願)인가?
 각하인(各下人)의 수교로다. 대소민인(大小民人) 몇 있구나.
 다른 선비 쓸 데 없어 별경륜(別經綸) 꾸며내니,
 방하증(方何證)도 별유사(別有司)라. 장의색장(掌議色掌) 임명으로
 의송(議訟) 참에 아니 갈까? 등장 가세. 등장 가세.
 유회소에 등장 가세. 유회소에 아니 되니
 영문(營門)으로 의송 가세. 근래 영문 쓸 데 없다.
 의송 가서 무엇 할꼬? 비장 먹일 돈이 없다.
 차국(此局)인들 못할쏘는가? 차국(此局)에도 아니 되면
 상언(上言)56이나 하여 보세. 그도 저도 아니 되면
 죽을 밖에 할 일 없네. 죽을 터가 되게 되면
 암울하면 오죽할까? 이런 일을 하는 놈들,
 우리 먼저 죽여 보세.
 이 노래를 돌려 듣고 가부간에 말들 하소.

漁父辭

천생아재(天生我才) 쓸데없어 세상명리(世上名利) 하직하고,
 상산풍경(商山風景) 바라보고 사호유적(四皓遺迹)1 다투리라.
 인간부귀(人間富貴) 절로 두고 물외연하(物外烟霞) 흥에 겨워,
 청라연월(靑蘿烟月) 대사립을 백운심처(白雲深處) 달아 두고,
 적적송림(寂寂松林) 개 짓는다. 요요운학(寥寥雲壑) 제 누 오랴.
 연심간북(烟深澗北) 시조(市朝)2 멀고 계화산남(桂花山南) 다사(多事) 적다.
 구예승류(扣柁乘流) 내려가니 백빈홍료(白蘋紅蓼) 경 좃고,
 장장조사(長長釣絲) 한 낙대를 낙조강천(落照江天) 비겼으니,
 구맥풍진(九陌風塵)3 미친 기별 일간어옹(一竿漁翁) 내 몰라라.
 범범창파(泛泛蒼波) 이내 흥을 녹록세인(碌碌世人) 알 리 없다.
 은린옥척(銀鱗玉尺) 뛰는 곳에 야수강천(野樹江天) 한 빛이다.
 거구세린(巨口細鱗) 낚아내니 송강노어(松江鱸魚)4 비할소냐.

노화상엽(蘆花霜葉) 낙대 걷어 모강연하(暮江煙霞) 배를 매고,
 십리파안(十里波岸) 내려가니 백구비거(白鷗飛去)뿐이로다.
 망혜한보(芒鞋閑步) 석양 길에 삼절죽지(三節竹枝) 손에 쥐고,
 동학송성(洞壑松聲) 구름 속에 초당시비(草堂柴扉) 들어가니,
 금서소일(琴書消日) 하던 곳에 유주배준(有酒盃樽) 하였던고.
 등고서소(登高舒嘯) 오늘하고 임류부시(臨流賦詩) 내일 하자.
 초연옥산(樵然玉山)⁵ 취한 후에 석두한면(石頭閑眠) 잠을 들어,
 학려일성(鶴唳一聲) 제 들리니 계월삼경(桂月三更) 밝아 있다.
 당우천지(唐虞天地)⁶ 이 아닌가? 갈천민맹(葛天民氓)⁷ 나뿐이다.
 장가단가(長歌短歌) 두어 곡에 일배일배(一盃一盃) 다시 먹고,
 신보화명(信步花鳴)⁸ 때때하고 한면태기(閑眠苔磯) 날로 하니,
 강호운림(江湖雲林) 이내 흥을 구로원학(鷗鷺猿鶴)⁹뿐이 안다.
 정리풍월(靜裡風月) 내 읊거늘 어주생애(魚舟生涯) 누가 알리.
 난생유곡(蘭生幽谷) 물리(物理) 없고 운재고산(雲在高山) 집이 없다.
 ∞∞ 산중(∞∞ 山中)¹⁰ 한가하되 조채자지(朝採紫芝) 아침 먹고,
 새대계상(塞埜溪上) 경물 좋은 데 석조강어(夕釣江魚) 저녁 먹고,
 세상명리(世上名利) 다 버리고 물외강산(物外江山) 외며 가며
 천재만재(千載萬載) 천만재(千萬載) 여차여차(如此如此) 늙으리라.

[각주]

- 1) 이민위천(以民爲天) : 백성을 하늘같이 여김. 즉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음.
- 2) 민지질고(民之疾苦) : 백성의 병고(病苦).
- 3) 윤음(綸音) : 임금이 신하나 백성에게 내리는 말.
- 4) 간촉하사 : 지극히 간절하시어.
- 5) 환곡(還穀) : 조선시대 때 춘궁기에 백성들에게 빌려 주었다가 추수기에 이자를 붙여 받아들이던 곡식.
- 6) 정봉(精捧) : 세곡(稅穀)을 정확하게 받아들임.
- 7) 칠사강(七事講) : 조선시대에 새로 임명된 지방관이 행하던 부임 절차. 대궐에 하직하고 부임지로 갈 때 계판 앞에서 농상성, 호구증, 학교흥, 군정수, 부역균, 사송간, 간활식 등의 지방관이 지켜야 할 일곱 조목을 외었다.
- 8) 배삭추봉(排朔秋捧) : 가을에 징수할 결세(結稅)와 잡세(雜稅)를 한 달에 얼마씩 여러 달에 걸쳐 나누어 걷음.
- 9) 시위소찬(尸位素餐) : 관위에 있으면서 하는 일 없이 녹만 먹는 것.
- 10) 간리(奸吏) : 간사한 아전.
- 11) 몽경(蒙頃) : 수리 혜택을 입은 논밭.
- 12) 재감(災減) : 재해를 입은 논밭에 대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
- 13) 첩징(疊徵) : 거듭 징수하는 것.
- 14) 묘당공사(廟堂公事) : 조정의 공무.
- 15) 작부(作夫) : 결세(結稅)를 거두어들이는 한 방법. 또는 그 결세 책임을 진 사람.
- 16) 결가(結價) : 토지 한 곁에 대한 조세의 액수.
- 17) 대동(大同) : 조선시대 삼세(三稅)의 하나로, 토지에 따라 쌀·무명 등을 바치게 하던 제도.
- 18) 인정(人情) : 지난날 벼슬아치들에게 은근히 주던 선물이나 뇌물.
- 19) 초지최 : 미상.
- 20) 입내조(條) : 미상.
- 21) 가결(加結) : 토지 결세(結稅)의 율을 올리는 것.
- 22) 각면서원(各面書員) : 각 면의 세금을 맡던 아전.
- 23) 식채주채(食債酒債) : 외상으로 먹고 갚지 못한 음식과 술 빚.
- 24) 구실 : 옛날에 세납(稅納)을 이르던 말.
- 25) 제사(題辭) : 백성의 소장이나 원서에 쓰던 관부의 판결이나 지령.
- 26) 읍보(邑保) : 읍의 보포(保布). 보포는 군보(軍保)로 거두어들이던 베나 무명.
- 27) 도계(到界) : 조선시대에 감사(監司)가 임지에 부임하던 일. 여기서는 도계전(到界錢)의 의미인 듯 함.
- 28) 위국호(爲國乎)아! 위민호(爲民乎)아! : 나라를 위함이라! 백성을 위함이라!
- 29) 환자(還子) : 각 고을의 사창에서 백성에게 꾸어 주었던 곡식을 가을에 다시 받아들이던 일.
- 30) 분석(分石) : 임진왜란 후 어지러운 국정을 틈타 지방 관리가 환곡에 족정이나 돌 등을 섞어 분량을 늘리고 늘어난 분량만큼 곡식을 빼내어 횡령하던 일.
- 31) 천석포(千石逋) : 천 석의 포탈한 조세.

- 32) 포흠(逋欠) : 관청의 물건을 사사로이 써버림.
- 33) 조 : 벼과의 한해살이 풀로, 오곡의 하나.
- 34) 와환(臥還) : 환자 곡식을 가을에 거두어들이지 않고, 해마다 모곡(耗穀)만을 받아들이던 일.
- 35) 작전(作錢) : 조선시대에 전세(田稅)로서 쌀·콩·무명 따위 대신에 값을 쳐서 돈으로 내게 하던 일.
- 36) 포리(逋吏) : 관물을 착복·포탈한 구실아치나 그 무리.
- 37) 불류시각(不留時刻) : 잠시도 지체하지 않음.
- 38) 민렴(民斂) : 백성에게서 돈·물품 등을 거두어들임.
- 39) 신구쇄마(新旧刷馬) : 신구 수령의 부임과 이임. 쇄마는 지방 관아에 배치하였던 관용의 말로서, 수령의 부임·이임·왕래 등에 책정된 말의 필 수에 따라 일정한 교통비를 지급하였는데 이를 쇄마전이라 한다.
- 40) 목불식정(目不識丁) : 일자무식(一字無識).
- 41) 패자(牌子) :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던 공식 글발. 패지(牌旨)
- 42) 칠십일면(七十一面) : 영남의 칠십일주(七十一州).
- 43) 사십 년 전 기묘년 : 진주민란이 일어난 철종 13년(1862)을 말하는 듯하나, 이때는 기묘년이 아닌 임술년이였다.
- 44) 판하공사(判下公事) : 임금이 공무를 판단하여 처리함. 판하는 임금이 문서를 결제함을 뜻한다.
- 45) 결포(結布) : 조선시대에 논밭 1결에 대하여 삼베나 무명 2필을 받던 세법.
- 46) 쇼 : 쇼(show)의 뜻으로 보이며, 여기서 이 작품의 필사 시기가 이러한 외래어의 수용 이후임을 알 수 있다.
- 47) 지우차우(至愚且愚) : 매우 어리석고 또 어리석음.
- 48) 피리춘추(皮裡春秋) : 사람마다 마음속에 셈속과 분별이 있음을 이룸.
- 49) 이진풍(李晋豊) : 당시 진주의 수령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보이지 않는다.
- 50) 연리청(掾吏廳) : 서리청(胥吏廳).
- 51) 의송(議送) : 백성이 고을의 원에게 패소하고 관찰사에게 상소하던 일.
- 52) 이노포(吏奴逋) : 아전이나 관노 등이 포탈한 돈이나 곡식.
- 53) 경가우리 : 미상.
- 54) 전패전(殿牌前)에 : 전패의 앞에. 전패는 지방 객사에 ‘전(殿)’자를 새겨 세운 나무 패로, 왕의 상징이다.
- 55) 유회(儒會) : 유생의 모임.
- 56) 상언(上言) : 백성이 임금에게 글월을 올리던 일. 또는 그 글월.
- 1) 사호(四皓) : 중국 한(漢)나라 고조(高祖) 때 상산(商山)에 숨은 네 노인. 곧 동원공(東園公)·기리계(綺里季)·하황공(夏黃公)·녹리선생(甬里先生). 수영과 눈썹이 모두 희다고 하여 호(皓)라 하였다.
- 2) 시조(市朝)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또는 물건이 많이 모이는 곳.
- 3) 구맥(九陌) : 중국 한(漢)나라의 서울 장안성(長安城) 안에 있던 아홉 개의 큰 길.
- 4) 송강노어(松江鱸魚) : 중국 상해시 송강현의 송강에서 나는 농어.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 5) 옥산(玉山) : 풍채가 수려한 사람.
- 6) 당우천지(唐虞天地) : 중국의 요(堯)와 순(舜)이 다스리던 세상.
- 7) 갈천민맹(葛天民氓) : 갈천씨(葛天氏)의 백성. 갈천씨는 무위(無爲)로써 천하를 잘 다스렸다는 중국

상고의 제왕.

8) 신보화명(信步花鳴) : 산보화명(散步花鳴 : 꽃을 보고 새소리를 들으며 산보함)의 뜻인 듯함.

9) 구로원학(鷗鷺猿鶴) : 갈매기와 백로와 원숭이와 학.

10) ∞∞산(∞∞山) : 중국의 백이(伯夷)·숙제(叔齊) 형제가 절의를 지키며 고사리를 캐어 먹었다는 수양산(首陽山)을 말하는 듯함.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